

## 정부 “탈석탄 그린뉴딜”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막는 그린뉴딜, 첫 시작은 2030 탈석탄!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다. 한국은 1.5°C 온도상승 목표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때 석탄발전 퇴출은 필수적이다. 그린뉴딜이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는 정책이 되려면, 정부는 우선 “그린”에 조응하는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현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단 4개의 부처에서 그린뉴딜을 계획 중이다. 곧 이어 한국형 뉴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밑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그린뉴딜의 방점을 ‘기후위기 극복’이 아닌 일자리 창출에 두었다. 여기 모인 청년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린뉴딜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린뉴딜은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 안정성과 청년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환경사업과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린뉴딜은 기존의 소비행태에서 벗어나 탄소배출제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적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따라서 국내외 석탄투자를 당장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시켜 마땅하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2030년 탈석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에 의하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2034년에 달해서야 수명을 다한다. 그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이 순간에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은 30년이 지나서도 탈석탄을 요구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기후위기로 닥칠 재난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과거와 오늘의 선택으로 축적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그린"에 조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을 보장하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린뉴딜을 요구한다!**

### **[3 대 요구안]**

- 1)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우선과제로 만들라
- 2)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를 명시하라
- 3) 국내외 석탄투자를 당장 중단하고, 올해 안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기후결의,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 Wave,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청년기후긴급행동